

아그파코리아(주)와 마이크로큐닉스(주)가 지난 11월 15일 소피텔엠버서더호텔 19층 오키드룸에서 아그파코리아 팀 반덴보쉬 사장, 권순기 이사 및 관련 임원, 마이크로큐닉스 이병열 사장, 큐닉스시스템 조용봉 사장 등 관련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CTP 시스템 솔루션 공급에 관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상업용 CTP 및 워크플로, 소모재를 포함한 전체 솔루션을 포괄하는 파트너십 계약으로 이뤄진 마이크로큐닉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아그파는 국내 디지털 시스템의 보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CTP 시스템 공급에 있어 선도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1998년 창립 이후 프리프레스 솔루션, 디지털 이미징 솔루션, SI & POD 솔루션 등 토털 디지털 솔루션을 인쇄 및 사진 업계에 보급하고 있는 마이크로큐닉스도 아그파와의 비즈니스 파트너십을 통해 인쇄산업 통합솔루션 전문회사로 거듭난다는 목표다. 이날 행사에서 이병열 마이크로큐닉스 사장은 “정직과 고객 중심의 가치 경영으로 급변하는 인쇄 및 사진 시장에 각종 디지털 장비를 공급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다”면서 “끊임없는 고객 관리 및 서비스 정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해온 것처럼 사진 및 인쇄업계를 선도하는 온·오프라인 통합 솔루션 전문회사로 재도약하기 위해 아그파의 최첨단 CTP 시스템 솔루션에 관한 비즈니스 협력관계를 맺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CTP 솔루션은 인쇄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인쇄 경영지원 시스템이고 아그파의 CTP 솔루션은 모두가 인정하는 혁신적이며 안정적인 장비인 만큼 전략적 제휴를 기점으로 CTP 솔루션 시장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팀 반덴보쉬 아그파코리아 사장은 “아그파는 100% 직접 판매 방법으로 CTP 솔루션을 공급해 왔으나 마이크로큐닉스와 같은 딜러채널을 도입하고 시장을 개척, 더욱 확대함으로써 지금까지 유지해온 선도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할 예정”이라면서 “고객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객의 환경에 맞는 맞춤형 CTP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혁신적인 시스템을 공급함으로써 그래픽 산업에서 명실상부한 최대 공급사가 될 것을 기대하며, 이번 비즈니스 협약으로 양사가 서로 윈-윈 할 것을 확신한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

아그파 · 마이크로큐닉스 CTP로 ‘윈-윈’

